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 비양도성 신체 소유구문 분석

양 성 혜
고려대학교

양성혜(2019),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 비양도성 신체 소유구문 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0(3), 119-148.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스페인어에서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소유구문 중 문제가 된 몇 개의 구문에 대해 인지문법에 근거한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스페인어 비양도성 신체 소유구문에서는 소유자 논항이 동사의 여격대명사로 실현되고 비양도성 논항 즉 피소유체는 직접목적어로 실현되는데, 이때 소유사를 쓰지 않고 정관사를 쓴다. 지금까지 이 구문들에서 비양도성 논항이 왜 소유자 논항에 묶여 의존적인 통사적 행태를 보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미완의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문제를 도출했고, 인지문법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다룬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자 논항이 가지는 [+피영향성]과 [+유생성] 자질을 적용해도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문들과 둘째,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피소유체가 정관사가 아닌 다른 한정사, 예컨대 지시사와 부정어 등이 사용된 예외적인 구문들이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소유구문에서는 성상형용사 및 전치사구에 의한 수식이 불가한데 내재적 소유구문일 때는 비록 신체부위 명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식어를 동반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핵심어 스페인어 비양도성 소유, 신체 부위, 외재적 소유구문, 내재적 소유구문, 인지언어학

I. 연구동기 및 주제

스페인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구문은 소유사(*posesivo*)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소유자 논항이 여격 접어(*clítico dativo*)로 나타나고 피소유체 논항에 정관사(*artículo definido*)를 사용한 구문 또는 여격 사용은 하지 않고 피소유체 논항에 소유사 대신 정관사(*artículo definido*)를 사용한 구문 등 의미적 속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이처럼 스페인어에서는 특히 신체 부위(*partes del cuerpo*)를 나타내는 일명 ‘비양도성 소유구문’(*posesión inalienable*)에서 소유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소유자(*poseedor*)-피소유체(*lo poseído*)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소유자가 주어와 다른 경우는 (1a)와 같이 소유의 여격이 사용되고 소유자가 주어와 같을 때는 (1b)와 같이 재귀대명사를 여격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면 여격 사용 없이 (1c)처럼 피소유체만 소유사를 쓰지 않고 정관사를 써서 나타낸 구문이 있다.

- (1) a. El sol te quemó la piel.
- b. María se lavó las manos.
- c. Esteban levantó la cabeza.

위의 예문들은 스페인어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소유구문이 가능한 형태들인데 예문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스페인어 비양도성 소유구문의 스펙트럼

- (a) 여격대명사(소유자) + 정관사 N(피소유체)를 쓴 소유구문
- (b) 재귀대명사(소유자) + 정관사 N(피소유체)를 쓴 소유구문
- (c) 주어(소유자) + 정관사 N(피소유체)를 쓴 소유구문

여격대명사(*pronombre dativo*)를 쓴 소유구문과 재귀대명사(*pronombre reflexivo*)를 쓴 소유구문은 소유자가 간접목적어형태로 독립적 논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재적 소유구문’이라고 한다. 반면 ‘su cabeza’나 ‘el perro de Juan’처럼 소유주와 피소유체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경우 ‘내재적 소유구

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특히 로망스어 계열 언어들은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소유구문으로 외재적 소유구문이 내재적 소유구문보다 훨씬 선호된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데 대한 설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어왔다.

예컨대 스페인어에서 '전치사 de + 소유자'를 (2a)에서 보듯 내재적 소유구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양도성 신체소유는 왜 (2b)에서 보듯 외재적 소유구문을 꼭 써야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2) a. Lavé el perro de Juan.
I washed John's dog.
b. ?Lavé la cara de Juan: Le lavé la cara a Juan.
I washed John's face.

따라서 많은 스페인어 소유구문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외재적 소유구문을 설명하는데 할애되었다(Demonte 1988, 1991, Vergnaud and Zubizarreta 1992, Leonetti 1999, Picallo and Rigau 1999, 허나운 2000, 2001, 심상완 2002, 곽재용 2004, Gael 2006, Pérez Vásquez 2007, 유은정 2007, 서소영 2013 등). 선행연구의 특징은 스페인어 여격대명사 소유구문과 관련 재귀구문 혹은 소유사와 정관사의 차이 등이 어떻게 통사적으로 도출되는지에 관해 설명한 통사적 연구들과 각 구문이 성립되기 위한 의미적 조건을 설명한 의미론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한 신체부위의 소유자가 여격대명사 또는 재귀대명사로 제시된 경우 피소유체인 신체부위는 (1a')와 (1b')와 같이 소유사를 쓰면 비문이 되는 반면, 소유자가 주어로 제시될 경우 피소유체 신체부위는 소유사를 써도 가능한 정문이

1) 소유구문을 연구한 선행연구 중 양도성소유(alienable possession)와 비양도성소유(inalienable possession)을 구분한 Vergnaud and Zubizarreta(1992)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들은 프랑스어 소유구문을 영어와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은 프랑스어에서 소유자가 간접목적어형태로 독립적 논항으로 나타나는 구문을 외재적 소유자 구문(External Possessor Constructions)이라고 명명하며, 소유주와 피소유체가 하나의 구성소(a constituent)를 이루는 경우를 내재적 소유구문(Internally Possessed Constructions)이라고 구분했다.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원어민 화자는 이 경우에도 정관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1') a. El sol te quemó la piel.
 a'. *El sol te quemó tu piel.
 b. María se lavó las manos.
 b'. *María se lavó sus manos.
 c. Esteban levantó la cabeza.
 c'. Esteban levantó su cabeza.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소유자가 피영향성[+afectado]²⁾이 높고 유생성[+animado]³⁾이 있는 경우 외재적 소유구문이 선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명사와 함께 쓰이는 여격대명사는 피영향성과 유생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외재적 소유구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그런데 피영향성과 유생성이 답

2) 심상완(2002, 113)은 Butt and Benjamin(1988, 112)의 외재적 소유구문에 출현하는 여격 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신체의 일부 혹은 긴밀한 소유관계에 놓여 있는 무언가에 가해지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to indicate persons or things affected by something done to a part of their body or to some intimate possession).” 이는 Talmy(1987)의 ‘피영향성’(affectedness)으로 이후 학자들에게서 널리 받아들여졌는데, 즉 외재적 소유구문이 선호되는 구문은 피소유체에 가해지는 행위로 인하여 소유주가 받게 되는 영향이 큰 경우라고 보는 관점이다(허나운 2001). 예컨대 심상완(2002, 114)에서는 “내재적 소유구문을 사용할 때는 피소유체에 가해지는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피소유체의 소유주가 받게 되는 영향의 뉘앙스까지는 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행위로 인해 소유구가 받게 되는 미묘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의 뉘앙스까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격 대명사, 정관사’를 활용한다”고 본다. 즉 옷을 입고 있지 않을 때 옷에 대해 행위를 가하는 경우 소유주는 이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지는 행위나 분리 불가능한 신체의 경우는 더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피영향성을 나타내는 외재적 소유구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3) 광재용(2004)에서는 외재적 소유구문과 여타 의무적 여격접어출현구문에서 여격명사구가 피영향성의 자질을 공히 갖더라도, 아래의 예처럼 여격명사구의 유생성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예) a. ?(Le) pinté la barandilla al balcón. [-Animacy][+Affectedness]
 b. La peluquera le pintó las uñas a Rosa. [+Animacy][+Affectedness]
 즉 소유자가 유생성이 있는 경우 외재적 소유구문이 더 선호된다.

보되어 있는 구문인데도 불구하고 외재적 소유구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 (3b)에서 보듯 내재적 소유구문도 가능하므로 과연 두 구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설명을 요구한다.

- (3) a. El sol les quemó la piel a los turistas.
- b. El sol quemó la piel de los turistas.
- c. *El sol quemó la piel a los turistas.

예컨대 (3a)는 외재적 소유구문이며 (3b)와 같은 내재적 소유구문도 가능하지만 (3c)와 같이 여격대명사가 나오지 않고 소유자를 간접목적어로 피소유체 뒤에 나타난 문장은 스페인어에서 원어민이 선호하지 않은 구문이다.⁴⁾ 이와 같은 언어현상은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가?

또한 피영향성이 없는 소유구문인데 외재적 소유구문으로 쓴 경우에 왜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4)에서 보듯 스페인어에서 mirar, ver, tocar, notar, sentir 등과 같은 지각동사(verbos de percepción)는 스페인어에서는 소유의 여격과 함께 쓰이지만 같은 프랑스어 계열 언어인 프랑스어에서는 여격 대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내재적 소유구문으로 소유사와 함께 사용된다.

- (4) a. Juan le ha visto la cabeza. (스페인어)
- b. *Jean lui a vu la tête. (프랑스어)

(Picallo and Rigau 1999, 1014)

4) Picallo and Rigau(1999, 1011)는 신체부위 명사가 아닌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쓰였을 경우 아래 (a)와 같이 여격대명사를 사용하여 피영향성을 강조하거나 (b)와 같이 소유사를 쓰거나 (c)와 같이 내재적 소유구문이 가능하지만, 여격대명사 출현 없이 소유자를 간접목적어로 표현하는 (d)와 같은 구문은 고어스러운(arcaizante) 표현으로 보고 선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 a. A María, le mancharon el vestido.
 b. Mancharon su vestido.
 c. Mancharon el vestido de María.
 d. ?Mancharon el vestido a María.

또한 스페인어 querer, admirar, estimar, odiar와 같은 감정동사(verbos de sentimiento)의 경우 아래 (5)의 예문과 같이 각 동사에 따라 외재적 소유구문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른 행태를 보인다.

- (5) a. Le admiro la estatura./ Admiro su estatura.
- b. *Te quiero el corazón./ Quiero tu corazón.
- c. *Le odio el carácter./ Odio su carácter.

(Picallo and Rigau 1999, 1015)

또한 타동사가 아닌 일부 자동사에서 여격접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피영향성에 근거한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 (6) a. El corazón me ardía de pasión.
- b. Al bebé ya le salen los dientes.
- c. Te crece la barba.

(Picallo and Rigau 1999, 1015)

(6)의 예문들은 모두 비대격 동사(verbos inacusativos)의 주어가 비양도성 소유를 나타낼 때의 예이다. 또 외재적 소유구문이 가능한 다른 자동사는 아래 (7)의 llorar, saltar, temblar와 같은 비능격동사들(verbos inergativos)이다.

- (7) a. Los ojos me lloran.
- b. Me saltó una muela.

(Picallo and Rigau 1999, 1015)

따라서 본고에서 다룰 첫 번째 주제는 피영향성과 유생성에 기초한 비양도성 외재적 소유구문에 대한 선행연구의 설명이 잘 들어맞지 않는 위와 같은 구문들을 인지언어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이다.⁵⁾

5) Picallo and Rigau(1999)는 스페인어에서 비양도성 소유관계 중 하나인 친족 명사(nombres de parentesco)의 경우 여격접어와 함께 정관사를 쓴 명사구로 소유자와 피소유체를 나타내는 외재적 소유구문으로 쓰이지 않지만 같은 로망스어계 언어인 까탈란어나 루마니아어의 경우 외재적 소유구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일반적으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에서는 피소유체인 신체부분이 반드시 정관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설명을 L2 스페인어 학습 현장에서 많이 제시되는데 과연 이 설명이 예외 없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아래 (8a)에서와 같이 *doler* 동사의 주어이자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la cabeza’로 정관사를 동반해야 하며 이때 그 소유자는 여격접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8) a. Me duele un poco la cabeza.
b. La besó en la mejilla.

(Leonetti 1999, 809)

(8b)의 경우는 ‘Besó su mejilla’라고 소유사를 쓰는게 아니라 신체 부위는 정관사를 동반한 명사구로 표현하되 전치사구로 실현되며 소유자는 직접목적격 대명사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8a)의 예와는 조금 다른 구문이지만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에 정관사를 써야한다는 규칙은 지켜지고 있다.

Leonetti(1999, 809)는 이 같은 외재적 소유구문에서 “정관사는 단지 한정성의 표지로 사용되는데 정관사의 자질인 유일성을 만족해야하므로 명사구 외연에 위치한 소유자의 신원은 필연적으로 확보되게 되어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소유 구문인데도 불구하고 명사구에 관사 없이 명사만 제시되거나((9a)), 정관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정사인 지시사((9c)) 및 부정어 또는 부정관사까지 쓰인 예들이다((9d)).

- (9) a. A Luisa le temblaban piernas y brazos.
a'. *A Luisa le temblaban piernas.
b. *Me duele esta cabeza.

(예) a. *No le conozco a los hijos.

b. *Quiero visitarte el país y conocerte a la familia.

본고에서는 비양도성 소유 중 신체부위에 관련된 단어들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하므로 친족명사의 외재적 소유구문에 대한 논제는 더 깊이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 c. Me rompí este brazo. / *Me rompí algunos brazos.
- d. Le duelen algunos dedos de los pies.

Picallo and Rigau(1999, 1008-9)는 Demonte(1988, 95)가 제시한 (9a)과 (9a')의 무관사 예문에 대해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두 개 이상 병렬(coordinación) 구조일 때만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하지만 왜 이런 현상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은 (9b)의 cabeza처럼 하나로 유일성이 담보된 명사구에서는 정관사 이외 다른 한정사를 쓸 수 없지만 (9c)의 brazo와 같이 실례가 하나 이상인 경우 한정의 한정사인 지시사 este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복수의 비한정의 부정어 algunos를 사용할 수는 없고, 반면 다수의 실례를 포괄하는 (9d)의 dedo 경우는 algunos와 함께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비양도성 신체부위 명사들을 동일한 한 가지 범주에 넣고 통사적으로 항상 정관사를 동반해야 한다고 그 쓰임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명사들을 다시 세분하여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에 쓰인 한정사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도 인지언어학적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세 번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세부주제는 신체를 가리키는 비양도성 소유의 명사들이 취할 수 있는 형용사나 전치사구의 성격에 대한 문제이다. 아래 (10)의 예와 같이 신체부위명사들은 성상형용사나 전치사구와 함께 쓰일 수 없지만 (10a-c),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가능하다(10d-f).

- (10) a. *Juana me lavó el pelo de seda.
- b. *Le maquillaron la nariz chata.
- c. *Levantó los peludos brazos.
- d. Juana me lavó el coche pequeño.
- e. Le plancharon la camisa gris.
- f. Agitó al aire el pañuelo de seda.

(Picallo and Rigau 1999, 1007)

Picallo and Rigau(1999, 1008)는 신체 부위 명사가 정관사 대신 소유사와 함

게 사용되면 기술적인 혹은 동격의 수식어(modificador descriptivo o apositivo)를 취할 수 있어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tus ojos azules, sus cansadas piernas, su voz profunda.*

정관사와 함께 쓴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성상 형용사는 함께 사용되지 않지만 한정적 형용사나 수식어(adjetivo o modificador restrictivo)는 취할 수 있다: *el brazo izquierdo, el labio superior o el dedo herido.* Picallo and Rigau(1999, 1008)는 신체부위로 한 개 이상의 실례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처럼 한정적 형용사와 함께 쓸 수 있다고만 기술하고 있어, 왜 성상형용사는 쓰임이 불가하고 한정형용사는 사용이 가능한지 더 심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만일 정관사 대신 지시사가 사용된 경우라면 성상형용사와 사용이 가능한데, 예컨대 한 아이에게 *Limpiaremos esta nariz tan sucia.*라고 쓸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견지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에 대한 3가지 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피영향성과 유생성 기준으로 외재적 소유구문을 설명할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문들에 대한 설명을 마련한다. 둘째,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피소유체가 정관사가 아닌 다른 한정사, 예컨대 지시사와 부정어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셋째,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피소유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및 전치사구 성격이 정관사를 동반할 때와 소유사나 지시사를 동반할 때 달라지는 이유를 규명한다.

II. 비양도성 소유구문 설명에 유용한 인지언어학적 원리

본 장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소개하면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 해석에 적용하여 앞서 제시한 논제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범주화(categorización)와 원형(prototipo)

인지언어학에서 범주(categoría)는 뚜렷한 경계가 없고 중심의 가장 원형적인 것부터 주변의 덜 원형적인 것까지 분포한다고 본다(Rosch 1973, 1977; Mervis and Rosch 1981; Taylor 1989).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설명한다면 소유구문과 관련하여 Langacker(1995, 56-57)는 소유주와 관련하여 피소유체를 18가지로 세분화되,⁶⁾ 1) 소유하고 있는 사물, 2) 친족관계, 3) 신체 부분의 3가지가 원형(prototipo)의 지위를 가지며 보편적인 기본 소유구문을 이룬다고 말한다. 즉 한 소유구문이 더 혹은 덜 원형적인 것인가는 피소유체의 원형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López García(2005, 109-114)는 인지적으로 화자에게 가장 가까운 소유관계의 정도에 따라 ‘소유’, ‘소속’, ‘관계’로 위계화했고, 각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먼저 화자에게 가장 가까운 소유관계로 ‘비양도성 신체적 소유’(posesión inalienable corporal)가 있고 ‘비양도성 정신적 소유’(posesión inalienable mental), ‘양도성 소유’(posesión alienable) 순으로 가깝고, 다음으로 ‘비양도성 소속’

6) Langacker(1995, 56-57)는 소유주와 관련하여 피소유체를 다음과 같이 1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1) 소유하고 있는 사물 (something owned): *his Porche*
- 2) 친족관계 (a relative): *your aunt*
- 3) 신체부분 (a part): *my knee*
- 4)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 (an unowned possession): *the baby's crib*
- 5) 조작된 속이는 것 (something manipulated) : *her rook*
- 6) 연관된 개인 (un associated individual): *our waiter*
- 7) 더 큰 집합체 (a larger assembly): *their group*
- 8) 가용할 수 있는 것 (something at one's disposal): *my office*
- 9) 신체적 특징 (a physical quality): *her height*
- 10) 정신적 특징 (a mental quality): *her equanimity*
- 11) 불변의 처소 (a permanent location): *our neighborhood*
- 12) 일시적 처소 (a transient location): *my spot*
- 13) 상황 (a situation): *your predicament*
- 14) 실행된 행동 (an action carried out): *Oswald's assassination*
- 15) 경험된 행동 (an action undergone): *Kennedy's assassination*
- 16) 선택된 것 (something selected): *your candidate (the one you back)*
- 17) 특정 기능을 이행하는 것 (something fulfilling a certain function): *our bus*
- 18) 예속되어 있는 것 (something hosted): *the dog's fleas*

(*pertenencia inalienable*), ‘양도성 소속’(*pertenencia alienable*)이 가깝고 상대적으로 ‘자동사적 관계’(*relación intransitiva*)와 ‘타동사적 관계’(*relación transitiva*)는 비교적 소유나 소속에 비해 덜 가깝다고 보았다.

이 같은 소유관계는,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소유형용사 혹은 소유대명사, 전치사구, 속격, 여격대명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스페인어에서 비양도성 신체소유를 나타낼 때 여격접사와 정관사의 연합구조를 쓴 외재적 소유구문이나 소유사 대신 정관사만 쓴 구문에서 피소유체가 소유사가 아닌 정관사를 동반하여 나타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신체 소유주와 신체 부위의 관계가 매우 원형적이기 때문에 정관사의 속성인 ‘유일성’(*unicidad*)만으로도 앞서 제시된 여격대명사를 통해 소유자를 인지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1c)에서 제시했던 *María levantó la cabeza*에서처럼 *su cabeza*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문두에 제시된 주어인 “*María*”를 소유자로 인지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⁷⁾

Leonetti(1999, 890)는 소유사 대신 쓴 정관사의 용법이 마치 정관사 사용을 허가하는 ‘연상조응용법’(*anáfora asociativa*)(11a)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상 소유사 대신 쓴 정관사는 한 문장 안에 소유자와 피소유체가 제시될 때만 가능하며(11b), 소유자가 피소유체 명사구가 있는 문장 밖의 다른 문장에 제시될 경우(11c) 아무리 인접하다 할지라도 합법성을 잃기 때문에 정관사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보았다.

- (11) a. La película les encantó. Y es que el guión es fantástico.
- b. A Claudia se le cerraban los ojos./ Claudia cerraba los ojos.
- c. *Claudia se acostó. Los ojos se cerraban.

7) Leonetti(1999, 808-810)는 소유사 대신 쓴 정관사 용법은 주로 신체의 부분(*partes del cuerpo*)을 나타내는 관계 명사에서 일어나는데 소유사보다 오히려 여격대명사와 정관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우며 로망스어 계열 언어들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여격으로 소유자가 표시된 경우 *A Luis se le saltaron las lágrimas*와 같이 관계명사는 정관사를 동반해야하며, **A Luis se le saltaron sus lágrimas*에서처럼 피소유체에 소유사를 쓰는 것이 비문이 된다. 또한 기동동사(*verbos incoativos*)로 쓰인 경우 주어의 위치에 나오는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Los ojos se le llenaron de lágrimas*가 *Sus ojos se llenaron de lágrimas* 보다 더 자연스럽다.

예컨대 (11a)의 예문에서 “el guión”은 앞서 정관사를 사용해 제시된 “la película”에 의해서 이미 인지적으로 활성화된 의미영역 안에서 연상되는 지시를 가리키므로 정관사 사용이 허가된 ‘연상조응’의 예이다. 문장 수준을 넘어서 문장 간에 적용된다. 반면 소유구문에 쓴 피소유체의 정관사는 반드시 동일 문장 내에서 소유자가 여격접어 혹은 주어로 제시될 경우만 가능하다((11b)). 문장 수준을 넘어가면 비문이 된다((11c)). 소유자-피소유체의 관계는 전체-부분(parte-todo)의 관계로 인지적으로 강도가 높은 원형적 소유관계이므로 언어적으로는 비교적 느슨한 정관사를 사용하지만 따라서 같은 한 문장 내에서 출현해야지만 소유관계에 대한 인지적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제약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이미지 도식(esquema gráfico)

대부분의 개념 체계는 은유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추상적인 것을 경험할 때 신체적인 것에 비추어 이를 이해하는데 한다고 보며 이 과정은 이미지 도식을 통해 일어난다(Lakoff and Johnson, 1980; Johnson, 1987). 이미지 스키마 즉 이미지 도식이란 ‘우리의 지각 상호작용과 신체 프로그램에 맞추어 외부 경험에 일관성과 구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은유적 확장을 가져오게 한다.’ 이미지 도식을 통해 의미의 은유적 확장이 이루어질 때 원형에서 주변적인 쓰임으로의 의미 확장도 일어나게 된다.

의미역 가설(Hipótesis de roles temáticos)을 발전시킨 Jackendoff(1983, 1990)의 경우도 자신의 의미역 이론은 Gruber(1965)에 기초하고 있고 공간적 개념의 구조화(the organization of spatial concepts)가 의미론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적절한 틀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⁸⁾ 소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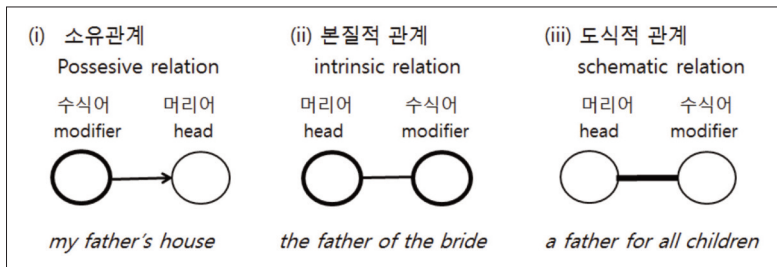
8) 일명 Jackendoff의 ‘개념 의미론’(Conceptual Semantics)이 생성문법과 생성음운론의 발전의 자양분이 되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인지언어학은 언어를 수학이나 형식논리학보다 보다 생물학에 가까운 기원을 가진다고 본다(Langacker 1988, 4). 또한 의미론이 언어 구조 뒤에 숨은 운동력이라고 본다. Langacker(1987, 138)에 따르면 “의미구조란 개인이 관습적인 이미지 도식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세

문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 유생성 [+animado/humano]이 있는 소유자가 무생성[-animado/humano]의 구체적인 사물을 소유한다는 원형적 이미지는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신체부위는 소유자에게서 양도불가한 대상이므로 공간적인 개념에서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은유를 통해 정신적인 소유, 친족관계, 처소관계, 논항관계 등으로 비가시적인 정신적, 추상적인 소유관계로까지 의미가 확장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윤곽화(perfil)

모든 언어 표현은 각 영역의 하부구조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데 이 과정을 윤곽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전치사는 개체(사물 혹은 관계)간의 관계를 윤곽화한다. 반면, 격 표시자는 명사구의 역할을 관계적으로 윤곽화한다. 스페인어에서 소유구문과 관련 있는 de 속격이 쓰인 내재적 소유구문과 여격 접어로 소유자가 분리되어 나온 외재적 소유구문을 비교할 때 이와 같은 윤곽화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언어학자인 Radden and Dirven(2007, 160)은 명사구내에는 세 유형의 관계에 의한 수식관계가 있다고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1> 관계에 의한 세 유형의 수식 Three types of qualification by means of a relation
(Radden and Dirven, 2007, 160)

계를 그려가는 것이며, 이 관습적 이미지 도식이란 대안적인 방법으로 포착된 상황을 구축해가는 우리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본다. Langacker(1987, 1991)은 “문법구조는 본유적으로 상징적이며 개념 내용에 대한 구조적이며 관습적인 상징화를 제공한다”라고 인지문법을 정의하고 있다.

인지적으로 두 실재물은 인지적으로 연결되어 도식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i) 소유관계에서는 굵게 표시된 원과 화살은 소유관계의 의미가 소유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소유자 지시점(punto de referencia)에 의해 윤곽화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소유구문에서는 머리어 핵 보다 [+humano/animado]인 수식어가 인지적으로 더욱 현저하며 지시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른 두 관계와 다른 점이다. (ii) 본질적 관계에서는 굵게 표시된 원은 본질적 관계의 의미가 관련된 두 실재물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도식적 관계에서는 두 원을 연결하는 짙은 선은 도식적 관계가 전치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컨대 ‘a father for all children’에서 전치사 for는 돌봄과 후원의 관계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관계의 세 가지 도식은 스페인어에서 내재적 소유구문((3a)이 존재하지만 외재적 소유구문((3b)을 꼭 써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

‘소유관계’는 인지적으로 볼 때 수식어인 소유자가 지시점이 되어 윤곽을 그려야하므로 소유자가 피소유체에 전치하는 것이 인지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윤곽을 그릴 수 있는데, 스페인어의 경우 inflected Noun phrase 즉 ‘로 표현되는 소유자 전치형이 불가능하고 ‘머리어(피소유체) de 수식어(소유자)’ 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 (ii) 본질적 관계 형태 (‘de N’는 소유뿐만 아니라 행위자, 대상, 기타 관계 등을 의미하는 구조이다⁹⁾)로 나타나게 되며 (i) 소유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¹⁰⁾ 특히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

9) Müller(2001)는 스페인어 소유구문 ‘N de N’ 구조에서 전치사 ‘de’가 추상적 요소로서 인지적 원시소(cognitive primitive)로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유구문으로 나타는 전치사 ‘de’는 소유개념보다 더 근본적인 인지 현상(basic cognitive phenomenon)을 표현해주는 전치사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0) Gael(2006)은 비양도성 소유구문들에서 신체부위의 소유물과 소유주가 내재적 소유구문, 여격접어, 전치사구의 3가지 형태로 도출이 가능하며 이 세 구조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 a. Ha golpeado repetidamente el pecho de Juan.
b. Le ha golpeado repetidamente el pecho a Juan.
c. Ha golpeado repetidamente a Juan en el pecho.

즉 (a-c)는 동사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체와 부분에 미치는 영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a)의 경우는 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고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은 반면, (c)는 전체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고 부분에 대한 영향이 가장 낮은 구조이다.

사물 명사와 달리 신체부위인 피소유체가 먼저 제시된다면 인지적으로 누구의 신체부위인지 윤곽화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소유자를 피소유체에 전치시키는 방법으로 소유자를 먼저 윤곽화하고 신체부위를 세 부적으로 윤곽화하는 외재적 소유구문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피영향성이 있는 대상이야말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2c)에서처럼 여격대명사 출현 없이 간접 목적어로 소유자를 피소유체 뒤에 제시한 문장이 비문이 되는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1c)에서처럼 여격대명사가 안 쓰인 경우는 주어 Esteban에 의해서 이미 소유자가 윤곽화 되었으므로 소유사보다 정관사를 사용하여 피소유체를 표현하고 윤곽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구문이 된다.

이와 같은 인지적 분석은 아래 예 (12)에서 보듯 수혜자의 해석만을 갖는 여격명사는 여격접어와 함께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12a)) 소유자로서만 해석을 갖는 여격명사는 반드시 여격접어 중복구조를 갖는다((12b))는 차이점 또한 설명하게 한다.¹¹⁾

- (12) a. Pablo (le) dio un paquete con regalos a Paloma.
b. La abuela *(le) acarició la cara al niño.

(심상완 2002, 107)

즉 외재적 소유구문의 소유자의 여격은 피소유체와 인지적으로 매우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하며, 수혜자의 여격은 인지적으로 수혜자와 피소유체의 연결고리가 필연성이 없으므로 생략 가능한 것이다.

(b)의 경우 (a)와 (c)와 비교했을 때 전체와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중간에 해당하는 구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유은정 2007, 84). Pérez Vázquez(2007)는 스페인어에 대명사가 필연적 소유를 가리킬 경우 전치소유형 구문보다 여격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이 더 많이 사용되며 이 때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여격 접어는 의미의 이중성, 모호성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Gael(2006)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Gael 2006, 1687; 서소영 2013, 331에서 재인용).

11) Demonte(1995)나 Maldonado(2002)는 스페인어의 여격접어는 모두 피영향적 여격(affected dative)이라고 했는데 수혜자의 여격과 소유자의 여격은 위와 같이 인지적 인 분석에 의거하여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지시점 도식(esquema de punto de referenc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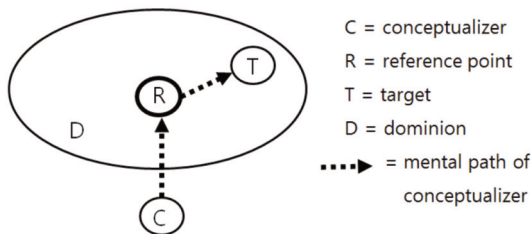
관계적 서술에서 전경(figura)과 배경(fondo)의 역할이 중요한데¹²⁾ Langacker (1987)는 관계적 윤곽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개체 즉 전경을 탄도체(trajector)로 명명하고 지시점(reference point)의 역할을 하는 즉 배경을 지표(landmark)라고 명명한다. 이때 어떤 것을 전경(탄도체)로 혹은 배경(지표)로 정할지는 각 개별언어의 어휘와 문법이 허용하는 관습적 이미지 그리기(conventional imagery)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공간적인 장면에서 크기가 더 크고 덜 움직이는 것이 배경이 되고 크기가 더 작고 움직임이 더 큰 것이 전경이 된다.

Wallace(1982, 211-212)는 담화 코퍼스 연구에서 전경과 배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유생성’(animacidad), ‘주제성’(topicalidad), ‘타동성’(transitividad)으로 추출하였는데 이들은 위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유생성’ > ‘주제성’ > ‘타동성’과 같이 위계적으로 전경이 되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보다 상세히 보면 “인간의, 유생의, 구체적인, 한정적, 완료의, 타동적인(humano, animado, concreto, definido, perfectivo, transitivo)” 언어 범주가 전경이 되며, “비인간의, 무생성의, 추상적인, 비한정적, 불완료의, 자동적인(no-humano, inanimado, abstracto, indefinido, no-perfectivo, intransitivo)” 범주가 배경을 이룬다. 즉, 소유구분에 이를 적용하면 소유구분

12)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 표현은 다양한 영역(domains)에서 지식 구조를 반영하는데, 복잡하고 추상적인 영역은 보다 기본적인 영역을 통해 구축된다고 본다(Langacker 1987, 147). 가장 기본적인 영역(basic domains)은 지각(sensory/perceptual), 우리 신체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처소 공간 관계(spatial relationships)와 같은 개념이다. 이때 영역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전경과 배경 원리인데, Gestalt에 의해 심리학에서 발견된 이 원리를 Talmy(1978)가 언어학에 적용하면서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다. Talmy(1978, 627)에 의하면 “전경은 움직이는 혹은 개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점이며 그 경로나 위치는 바뀔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현저한 사물 혹은 사건으로 인지된다”(The Figure object is a moving or conceptually movable point whose path or site is conceived as a variable, the particular value of which is the salient issue). 반면 “배경은 지시점이며 지시를 안에 고정된 무대이며 전경의 경로나 위치가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The Ground object is a reference-point, having a stationary setting within a reference-frame, with respect to which the Figure’s path or site receives characterization).

에서 소유자([+유생성(인간의)])가 문법적으로 보면 보어이지만 핵 명사 피소유체보다 인지적으로는 두드러지는 전경이 된다.

Langacker(1993)는 소유구문에서 한 개체(소유자)가 다른 개체(피소유체)와 심적 접촉을 만들기 위해 소유자가 지시점으로서 먼저 불러일으켜지게 된다는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시점 도식’(esquema de punto de referencia)을 제시한다.¹³⁾



<그림 2> Reference-point schema (Langacker 1993, 6)

여기서 개념자(conceptualizer)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를 말하며, 목표(target)는 지시점에 심적 접촉을 만들고자 하는 개체이자 개념자가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개체이다. D라고 표현되는 영역(dominion)은 추상적 개체로서 특정 지시점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 즉 잠재적인 목표들의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시점(R)을 둘러싼 원이 진하게 표시된 것은 인지적으로 지시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소유구문에서는 한 피소유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유한 소유자에 의해, 소유자로부터 인지적 지도를 그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신체소유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13) Langacker(1993)의 지시점 도식 <그림 2>는 원저자의 도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원문에 있는 그대로 영어로 제시하고 본문에서 각 영어 용어를 설명한다.

III. 신체 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 중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논제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본장에서는 본고의 서론에서 제시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에 대한 세 가지 논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1. 피영향성과 유생성 기준으로 외재적 소유구문을 설명할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문들

스페인어 지각동사(verbos de percepción), 예컨대 mirar, ver, tocar, notar, sentir 등과 같은 동사는 스페인어에서는 소유의 여격과 함께 쓰여 외재적 소유구문을 이루지만 같은 로망스어 계열 언어인 프랑스어에서는 여격 대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소유사를 사용한 내재적 소유구문으로만 사용되는 차이를 보이는데 예문 (4)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 (4) a. Juan le ha visto la cabeza. (스페인어)
b. *Jean lui a vu la tête. (프랑스어)

이 구문은 피영향성은 없지만 ‘지각’이 인지언어학에서는 “우리의 지각의 상호작용과 신체 프로그램에 맞추어 외부 경험에 일관성과 구조를 부여하며 이미지 스키마 즉 이미지 도식을 조직”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측면에서 원형적인 동사이며 Langacker(1993)의 ‘지시점 도식’에서 신체 부위의 소유자가 먼저 여격 대명사 형태로 피소유체에 앞서 제시되면서 목표(T)인 지시대상에 인지적 접근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즉 피영향성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을 마련하는 지시점 관점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프랑스어에서는 피영향성 자질이 소유의 여격 자질을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어 스페인어와 달리 외재적 소유구문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페인어 감정동사(verbos de sentimiento)의 경우 예컨대, querer, admirar, estimar, odiar의 경우 각 동사에 따라 외재적 소유구문 가부에 대한 다른 행태를 보였다.

- (5) a. Le admiro la estatura./ Admiro su estatura.
 b. *Te quiero el corazón./ Quiero tu corazón.
 c. *Le odio el carácter./ Odio su carácter.

이에 대한 설명은 역사언어학적 관점을 인지적으로 해석하면서 마련할 수 있다. (5a)의 admirar 동사는 라틴어 *admirari*에서 파생했는데, “볼 때 시각적으로 놀라움을 야기한다(causar una sorpresa a la vista)”는 뜻¹⁴⁾이며, 형태론적으로는 근접(cercanía)를 뜻하는 *ad* 접두사에 보다(mirar)를 뜻하는 *mirari*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라고 할 수 있다.¹⁵⁾ 즉, 다른 감정동사와 달리 admirar 는 지각동사에서 파생한 어원을 갖고 있으므로 지각동사처럼 여격 대명사가 나오는 외재적 소유구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예문에서 보듯 일부 자동사에서 사용된 여격대명사에 대해서도 피영향성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 (6) a. El corazón me ardía de pasión.
 b. Al bebé ya le salen los dientes.
 c. Te crece la barba.
- (7) a. Los ojos me lloran.
 b. Me saltó una muela.

(6)의 예문들은 모두 주어가 동사의 행위의 대상(tema)이 되는 비대격 동사 (verbos inacusativos)로 주어가 비양도성 소유의 피소유체인 경우인데 주로 후치되고 여격대명사로 소유자를 표현하는 경향((6b), (6c))을 보이며 주어가 전치되어도 여격대명사를 쓸 수 있다((6a)). 이 경우 신체부위 명사구는 소유자 여격과 함께 쓰여 동사의 대상(tema)을 나타내므로 피영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언어학적 견지에서 여격대명사로 제시된 소유자와 피소유체가 한 문장에 쓰임으로써 소유관계에 대한 강력한 인지적 윤곽화를 그리기 때문

14) Diccionario etimológico de Chile, <https://etimologias.dechile.net>

15) Definiciona, www.definiciona.com

에 가능하다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 설명이 맞다면 (7)의 동사들은 주어가 행위자 역할을 하는 비능격 동사들(verbos inergativos)이라 피영향성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Picallo and Rigau(1999, 1016)는 이 동사들은 행위자 주어(sujeto agente)를 요구하나 소유의 여격 대명사가 쓰인 비양도성 소유구문이 되면 주어는 행위자 자질을 잃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7a)의 lloran은 ‘운다’는 뜻이 아니라 ‘lagrimear(눈물이 떨어지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7b)에서 saltó는 ‘튀어 오르다’가 아니라 ‘caer(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마치 비대격 동사처럼 사용되었고 역시 의미상 여격으로 실현된 소유자와 신체부위인 피소유체가 한 문장에 쓰여 인지적 윤곽화가 이루어진다고 인지적 이미지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영향성의 타동사 구문과 달리 위와 같은 부류의 자동사에 쓰인 신체소유구문은 타동사와 달리 주어인 피소유체 논항이 여격으로 실현된 소유자 논항보다 앞서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타동사인 경우 주어가 지시하는 (유생의) 실체물과 여격이 지시하는 (유생의) 실체물이 둘 다 제시되므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인지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유자가 여격으로 실현되어 피소유체보다 전치해야 한다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요구된다면, 자동사인 경우 소유자는 여격 하나로 실현되고 주어는 피소유체이므로 소유관계에 대한 인지적 활성화가 보다 용이하여 어순에 대한 제약이 덜 엄격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신체 비양도성 피소유체 논항에 정관사가 아닌 지시사와 부정어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앞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소유 구문인데 명사구에 정관사를 쓰지 않고 명사만 제시되거나((9a)), 정관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정사인 지시사((9c)) 및 부정어 또는 부정관사까지 쓸 수 있다((9d))는 예를 제시한 바 있다.

- (9) a. A Luisa le temblaban piernas y brazos.
 a'. *A Luisa le temblaban piernas.
 b. *Me duele esta cabeza.
 c. Me rompí este brazo. / *Me rompí algunos brazos.
 d. Le duelen algunos dedos de los pies.

Langacker(2008, 286)는 정관사는 지시에서 적합한 고려 대상이 되는 범위가 하나의 명백한 사례만을 포함한다고 보는 Hawkins(1978)와 Epstein(2001)의 입장을 취한다. 즉 지시대상의 ‘유일무일한 사례’(el caso único)로 이끄는 것을 정관사의 역할로 보고 있다.

인지문법학자인 Radden and Dirven(2007, 89-91)은 ‘정관사는 부정관사와 대비되면서 한정성 대 비한정성으로 청자의 접근성에 대한 화자의 전제를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화자가 청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실례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화자는 부정관사를 써서 ‘비한정 지시’(referencia indefinida)를 사용할 것이며, 반대로 화자가 청자가 자신이 의도한 사물의 실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 화자는 정관사를 써서 ‘한정지시’(referencia definida)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도 역시 화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물들에 대해 청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며 이때 화자가 한 사물의 실례(objetos)를 고정, 즉 ‘단상화하는 것’(anclaje)¹⁶⁾이 관사의 의미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을 곧 ‘지시’(referencia)로 보고 있다.

인지언어학 견지에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에 쓰인 정관사는 지시대상의 ‘유일무일한 사례’로 이끄는 인지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관사가 없이 쓴 (9a)의 신체부위 명사가 한정사 없이 무관사 상태로 쓴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Picallo and Rigau(1999, 1008-9)는 Demonte(1988, 95)가 제시한 (9a)과 (9a')의 예문에 대해서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

16) 한정사가 지시에 하는 역할을 인지언어학에서는 ‘고정화’(grounding)로 보고 있는데, 스페인어 번역은 López García(2005)의 ‘anclaje’(닻을 내리기)라는 번역을 취하여 본 고에서 사용한다.

가 두 개 이상 병렬(coordinación) 구조일 때만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Bosque (1996, 38)는 신체부위는 아니지만 아래 (13)의 예문들을 들어 무관사 명사의 병렬구조가 주어의 특정성이 요구되는 *estar* 동사의 주어 자리에서는 가능하지만 주어의 불특정성을 나타내는 *haber* 존재동사와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기술한다.

- (13) a. Había mujeres en la estación.
 a'. *Había mujer e hijo en la estación.
 b. *Estaban mujeres aguardando el tren.
 b'. Estaban mujer e hijo aguardando el tren.

(Bosque 1996, 38)

인지언어학적 견지에서 위의 대조를 설명한다면 주어자리는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성이 높은 실재물이며 무관사로 쓰인 명사의 병렬구조가 정관사를 쓰지 않아도 주어의 지시대상이 한정적이고 특정적이며 신원확인이 가능함을 담보해준다고 할 수 있다. Vergnaud and Zubizarreta(1992, 596)도 비양도성 신체 소유가 사용되는 환경은 매우 전형화된 것으로 “전형적인 한 특정의 개인을 전제하기 때문에 비양도성 명사는 양도성 명사와 달리 소유자 논항을 반드시 가지게 되어있다”고 본다. 스페인어 신체소유 구분은 여격대명사를 통해 이미 소유자가 논항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무관사이지만 병렬구조로 신체부위 명사가 제시될 때 한정성과 특정성이 마련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9a)처럼 무관사 복수명사가 하나로 제시될 때는 (13a)와 같은 불특정, 비한정의 지시대상을 가리킬 때는 가능하나 (13b)에서 보듯 주어의 특정성을 요구하는 문장에서는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무관사 명사는 한정성이 없기 때문에 개체(entidad)가 아닌 종류(clase)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Vergnaud and Zubizarreta(1992)의 용어로는 종류가 ‘type’(유형), 개체는 ‘token’(사례)에 상응한다. 인지적으로 보면 스페인어의 무관사 병렬구조가 ‘종류’에서 ‘개체’로 혹은 ‘유형’에서 ‘사례’로 한정도의 이미지를 그리게 하기 때문에 (9a)와 같은 문장이 정문으로 허가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논항에서 (9b)에서는 지시사(demostrativos)가 사용불가한데 (9c)에서는 왜 가능한가? 지시사를 썼을 때와 정관사를 썼을 때의 차이점은 Langacker(2008, 284-285)의 인지문법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정관사에서는 지시사가 포함하는 “근접/원격 구분이 중립화되고 유일한 사례로서 단일 지시체를 식별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만을 나타낸다”고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9b)의 cabeza처럼 하나로 유일성이 담보된 명사구에서는 정관사 이외 다른 한정사를 써서 신원 확인을 할 필요가 없지만 (9c)의 brazo와 같이 실례가 두 개인 경우 한정사의 한정사인 지시사 este를 사용하여 원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의 비한정의 부정어 algunos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다수의 실례를 포괄하는 (9d)의 dedo 경우는 그 중 불특정의 몇몇만으로 포함하는 부정어 algunos와 함께 쓸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양도성 신체부위 명사들을 한 가지 동일한 범주에 넣고 그 통사적 쓰임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언어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비양도성 명사들의 실례의 수에 따라 세분하여 쓰일 수 있는 있는 한정사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체부위 비양도성 피소유체 논항을 수식하는 형용사 및 전치사구 성격이 정관사를 동반할 때와 소유사나 지시사를 동반할 때 달라지는 이유

신체부위명사들은 정상형용사나 전치사구와 함께 쓰일 수 없지만 (10a-c),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들은 가능하다(10d-f)는 차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 (10) a. *Juana me lavó el pelo de seda.
b. *Le maquillaron la nariz chata.
c. *Levantó los peludos brazos.
d. Juana me lavó el coche pequeño.
e. Le plancharon la camisa gris.
f. Agitó al aire el pañuelo de seda.

Bosque(2006, 43)는 비양도성 신체 소유 구문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은 ‘전형화된 환경’(situaciones estereotipadas)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정적 형용

사’(adjetivo restrictivo)는 사용한다고 말한다: *el brazo izquierdo, el labio superior o el dedo berido*.

이에 대한 설명을 인지언어학적 견지에서 찾는다면 인지적으로 신체소유는 비양도성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신체부위가 분리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소유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소유자와 피소유체의 지시가 떨어져 있지만 두 개의 다른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도식에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소유체 명사구가 신체 소유인 경우 특히 소유자-신체부위의 신원확인 이상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성상형용사의 사용이 불허된다. 하지만 특정 신체부위가 한 개 이상의 실례가 가능한 경우¹⁷⁾에는 한정형용사를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예컨대 어느 쪽 팔인지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된 한정형용사는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 양도성 소유관계이면서 소유자와 피소유체는 당연히 분리된 두 개의 개체로 인지도식이 그려지므로 언어적으로 보았을 때 도 이러한 인지 작용이 반영되어 소유자를 나타내는 여격 대명사가 피소유체 논항과 서로 분리되어 통사적인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소유체를 사물 명사로 실현한 경우 그 개체를 설명하고 개별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성상형용사나 전치사구를 통해 부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의 예 (10)의 예문들은 소유자가 신체부위 명사구 밖에 위치한 외재적 소유구문들인데, 만일 신체 부위 명사가 정관사 대신 전치 소유사와 함께 사용되면 예컨대 “*tus ojos azules, sus cansadas piernas, su voz profunda*”에서와 같이 ‘기술적인 혹은 동격의 수식어’(modificador descriptivo o apositivo)를 취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외재적 소유구문으로 실현된 신체소유의 이미지 도식은 여격대명사와 정관사를 쓴 신체

17) Vergnaud and Zubizarreta(1992)는 유형(type)과 사례(token)의 구분을 제시하면서 비양도성 신체부위는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사례 혹은 실례로서 전형적인 인간이라면 몇 개의 기관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와 같은 전제를 이미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명사구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소유사를 쓰면서 소유자는 명사구 안으로 들어와서 내재적 소유구문을 이루게 되었고 더 이상 연합체로서 쓰여 제약을 받던 외재적 소유구문 내 피소유체 명사구와는 통사적으로 다른 자유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구문은 내재적 소유구문에서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모든 형용사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정관사 대신 지시사가 사용된 경우, 가령 *Limpiaremos esta nariz tan sucia* 라고 성상형용사와 사용이 가능한데, 이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를 뜻하는 여격대명사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피소유체 혹은 전체-부분과 같은 이미지 도식 내 인지적 연합체가 존재하지 않고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nariz*는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42

143

IV. 결 론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소유구문을 둘러싼 논의 중 가장 활발한 논쟁이 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의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설명력이 부족했던 미완의 문제들을 인지언어학적 원리와 도구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세 가지 논제는 첫째, 왜 스페인어에서는 굳이 외재적 소유구문을 사용하는가? 외재적 소유구문과 내재적 소유구문이 모두 다 가능한 경우 어떠한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는가? 또한 이러한 외재적 소유구문을 요구하는 구문은 피영향성과 유생성이 있는 경우라고 밝힌 선행연구를 적용했을 때 설명력이 떨어지는 구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컨대 타동사 중 지각동사, 감정동사가 사용된 외재적 소유구문과 자동사와 함께 사용된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은 피영향성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여격 대명사를 사용한 외재적인 소유구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인지언어학 원리 중 ‘범주와 원형’, ‘이미지 도식’, ‘윤곽화’, ‘전경과 배경’ 등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특히 Radden and Dirven(2007)의 ‘관계의 3가지 유형’과 Langacker(1993)의 ‘지시점 도식’(reference-point schema)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피소유체 논항에 정관사가 아닌 다른 한정사, 예컨대 지시사와 부정어 등의 사용된 경우와 무관사로 실현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신체부위의 실례가 하나인 경우와 달리 두 개인 경우와 다수가 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인지적 ‘이미지 도식’과 ‘윤탁화’ 개념을 적용하여 신체부위 명사가 취할 수 있는 한정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언어학적 맥락에서 마련하였다.

셋째,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피소유체 명사가 정관사를 동반하고 여격대명사를 함께 쓴 외재적 소유구문에서는 성상형용사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는 인지언어학의 ‘이미지 도식’과 ‘윤탁화’ 개념에 근거하여 소유자 논항과 피소유체 논항이 인지적 연합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소유사로 소유자가 실현된 내재적 소유구문이거나 여격이 출현하지 않고 신체 부위 명사가 지시사와 사용된 경우는 소유자-피소유체 인지적 연합체 구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형용사 종류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설명하기 힘들었던 신체부위 비양도성 소유구문을 둘러싼 예외적 혹은 문제적인 구문들을 인지언어학적 원리와 도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곽재용(2004), 「외재적 소유구문과 유생성에 관하여」, 스페인어문학, Vol. 32, pp. 11-31.
- 서소영(2013), 「한정 명사구의 소유 의미에 관한 연구: 스페인어 자료를 중심으로」, 언어학, Vol. 21, No. 3, pp. 319-337.
- 심상완(2002), 「외재적 소유주 구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 실용 교육과 이론 교육의 효과적 절충 방안 모색」, 스페인어문학, Vol. 22, pp. 103-132.
- 유은정(2007), 「비양도성 소유구문의 명사 술어 분석」, 스페인어문학, Vol. 44, pp. 75-94.

- 허나운(2000), 「스페인어 소유구문에 관한 최소이론적 분석 -한국어 영어 소유 구문과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_____(2001), 「스페인어 여격 소유구문과 한국어 다중 목적어 구문에 관한 피 영향성 분석」, *스페인어문학*, Vol. 19, pp. 169-194.
- Bosque, Ignacio(1996), “Por qué determinados sustantivos no son sustantivos determinados”, I. Bosque(ed.), *El Sustantivo sin determinación*, Madrid: Visor libros, pp.13-119.
- Butt, John and Carmen Benjamin(1988), *Modern Spanish*, Edward Arnold.
- Demonte, Violeta(1988), “El artículo en lugar del posesivo y el control de los sintagmas nominales”,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Vol. XXXVI, No. 1, pp.89-108.
- _____(1991), “El artículo en lugar del posesivo”, *Detrás de la palabra*, Alianza. pp.235-255.
- _____(1995), “Dative alternation in Spanish”, *Probus*, Vol. 7, pp.5-30 .
- Epstein, Rochard(2001), “The Definite Article, Accessibility, and the Construction of Discourse Referents”, *Cognitive Linguistics*, Vol. 12, No. 4, pp. 333-378.
- Gael, Vaamonde(2006), “Las relaciones posesivas y la estructura argumental de la cláusura”, *Actas del XXXV Simposio Internacional de la Sociedad Española de Lingüística*, Universidad de León.
- Gruber, Jeffery S.(1965),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Ph. D. dissertation, MIT. Reprinted as *Lexical Structures in Syntax and Semantics*, Amsterdam: North-Holland, 1976.
- Hawkins, John(1978), *Definiteness and Indefiniteness: A Study in Reference and Grammaticality Prediction*, London: Croom Helm.
- Jackendoff, Ray(1983), *Semantics and Cognition*,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A: MIT Press.
- Johnson, Mark(1987),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1988), “An Overview of Cognitive Grammar”, Brygida Rudzka-Ostyn(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3-4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_____(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_____(1993), “Refrence-point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 Vol. 4, pp. 1-38.
- _____(1995), “Possession and Possesive Constructions”, R. Taylor and E.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Berlin: Mouton de Gruyter, pp.51-79.
- _____(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onetti, Manuel(1999), “El artículo”, I. Bosque and V. Demonte(eds.), *GDLE*, Cap. 12, pp. 787-890.
- López García, Ángel.(2005), *Gramática cognitiva para profesores de español L2*, Madrid: Arco/Libros.
- Maldonado, Rafael(2002), “Objective and subjective datives”, *Cognitive Linguistics*, Vol. 13, No. 1, pp. 1-65.
- Mervis, Carolyn and Eleanor Rosch(1981), “Categorization of Natural Objec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2, pp.89-115.
- Müller, Henrik(2001), “Spanish N de N structures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I. Baron, M. Herslund and F. Sorensen(eds.), *Dimensions of posses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p.169-186.
- Pérez Vásquez, Enriqueta(2007), “Pronombres superfluos dativos benefactivos en español e italiano”, F. San Vicente(ed.), *Estudios de lingüística contrastiva español e italiano*, Bologna: Clueb, pp. 11-34.
- Picallo, M. Carme and Gemma Rigau(1999), “El posesivo y las relaciones posesivas”, I. Bosque & V. Demonte(eds.), *GDLE*, Cap. 15, pp. 973-1023.
- Radden, Günter and René Dirven(2007), *Cognitive English Grammar*, John Benjamins B. V.
- Rosch, Eleanor(1973),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erceptual and Semantic Categories”, Tomothy E. Moore(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pp. 111-144.
- Rosch, Eleanor(1977),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Eleanor Rosch and

- Barbara B. Lloyd(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H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27-48.
- Talmy, Leonard(1978),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J. H. Greenberg et al.(eds.),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4,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625-649.
- (1987), “The relation of grammar to cognition”, B. Rudzka-Ostyn (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pp.165-206.
- Taylor, John, R.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 Vergnaud, Jean-Roger and Maria Luisa Zubizarreta(1992), “The definite determiner and the inalienable constructions in French and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23, No. 4, pp. 595-652.
- Wallace, Stephen(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Paul J. Hopper(ed.), *T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p. 201-223.
- Definiciona, www.definiciona.com
- Diccionario etimológico de Chile, <https://etimologias.dechile.net>

양 성 혜

고려대학교
sunghyey@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3일

Analysis of Corporal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Sung Hye, Yang

Korea University

Yang, Sung Hye(2019), "Analysis of Corporal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3), 119-14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nalysis based on Cognitive Linguistics for some problematic possessive constructions related to body's parts in Spanish. In corporal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the possessor argument is realized as a dative complement of the verb and the inalienable argument as direct object which contains a definite article not a possessive adjectiv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tried to explain why in those constructions the inalienable argument is syntactically bound to the possessor argument. Through revising their results, we found three topics not explained sufficiently and tried to clarify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problematic constructions about body's parts treated in our investigation are the following: first, some constructions which could not be explained satisfactorily by applying an explanation based on [+affectedness] or [+animacy] as features of the possessor argument and second, some exceptional constructions whose inalienable argument doesn't have definite article but another determiners like demonstrative or indefinite. Finally, we tried to explain why external possessive constructions can not be modified by qualifying adjective or prepositional phrase but internal possessive constructions can be so even though they contain body's part noun.

Key words Inalienable Possession in Spanish, Body's Parts, External Possessive Constructions, Internal Possessive Constructions, Cognitive Linguistics